

칠성조선소

서체 이야기

아버지의 글씨체-

Chilsung Boatyard
Type Storybook

칠성

칠성조선소 소개

칠성조선소는 한 때
배를 만들고 수리하던 곳입니다.



칠성조선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46번길 45
45, Jungang-ro 46beon-gil Sokcho-si Gangwon-do

1952년부터 원산조선소-칠성조선소로 이어진 65년 피난을 내려와 조선소 문을 열고, 운영을 맡아온 가족 3대의 이야기와 이 터를 배경으로 배를 손수 만들고 수리해온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곳 조선소에 머물렀었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고기잡이 배들의 이야기도요.

목선에서 철선으로, 또 플라스틱으로 배의 뼈대와 외연이 바뀌고 속초 항구의새벽을 밝혔던 크고 작은 어선들이 어느새 쓰임을 다해 해체되는 동안 이곳 <칠성조선소>는 셀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품고 또 흘러 보내며 청초호변에서 담담히 시간을 마주해왔던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존 조선소의 문을 닫은 <칠성조선소>는 현재 오랜 사택을 활용한 <조선소썰렁>카페와 옛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은 전시공간, 그리고 레저용 카누, 카약을 제작하며 조선소 맥을 이어가는 <와이크래프트보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02

This is the story about the three-generation family who have run boatyard manufacturing business settled down since 1952 in 65 years of the refuge from Wonsan Boatyard to Chilsung Boatyard and the live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built and repaired boats. There are also the stories of fishing boats that cannot be counted.

While the boat's frame and sight edge were changed from wooden to steel, and the large and small fishing boats that lit the dawn of Sokcho harbor were being dismantled for use, The Chilsung Boatyard here seems to have been facing the time calmly on the shore of Cheongcho Lake, carrying and passing countless life stories.

Chilsung Boatyard, which closed the existing boatyard in 2017, is now home to <Chosunso Salon> Cafe, a small exhibition space remodeled from its old factory building, and <YCRAFTBOATS> which manufactures recreational canoes, kayaks and connects the boatyard's pulse.

칠성조선소 서체이야기

Chilsung Boatyard Type Story

03

폰트명	Sandoll 칠성조선소
프로젝트	칠성조선소 (최윤성, 백은정, 최승호)
참여인원	아이디브릿지 (박재현) 산돌 (강주연, 진유성)
출시년도	2019
Name	Sandoll Chilsung Boatyard
Project	Chilsung Boatyard (Choi Yunseong, Baek Eunjeong, Choi Seungho)
participants	ID.bridge (Park Jaehyeon) Sandoll (Kang Juyeon, Jin Yuseong)
Year	2019

현재 개발한 폰트는 저희 아버지께서 배에 이름을 쓰시던 글씨체입니다.
배를 다 짓고 난 후, 혹은 수리가 끝이 나고 새 페인트로 칠을 마치고 나면 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배에 이름을 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설이 자동화가 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저희처럼 작은 조선소에는 그래서 각각 다른
모양의 글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비슷하게 생긴 배들이어도 배에
써있는 글씨체를 보면 어느 조선소를 이용하는 배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저희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담긴 글씨체 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조선소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기 전 아버지께서 공장의 오래 된 건물의
벽에 써있던 다 지워져 가던 ‘칠성조선소’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추운 날씨 탓이었는지
글씨를 다 쓰시고 몸살로 며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글씨체를 남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04

This is the font from my father's handwriting which he used to write the names on the boat.
He wrote the name of boats at the very last moment of building process or repair work, and
before the boats return to the water.

In small boatyards like us, writing on the boat was a job for a person because the facility for
lettering was not modernized, therefore each boatyard had own unique writing style.
Because of my father's writing style I could recognize the boats from my boatyard among
similar looking boats at a pier.

Last February, before the boatyard re-opened in a new look, my father rewrote “Chilsung
Boatyard” on the old building's wall. After seeing my father writing all the letters and
suffering for a few days due to cold weather, we started thinking, 'how can we leave my
father's handwriting?'

아버지는 글씨를 친 My father write

05

신념과 양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바르고 힘있는 <아버지의 글씨>는
칠성조선소의 정체성입니다.

참 잘쓰십니다.
es very well.

창영

07 승해

창영

창영

환홍

영

행

지

풍

승

진

하

충만



태흥 일길

대흥 오성

순양 용진

방주 일광

북양 왕성

칠성조

칠성조

선소

칠성조선소 원도(原圖)

12

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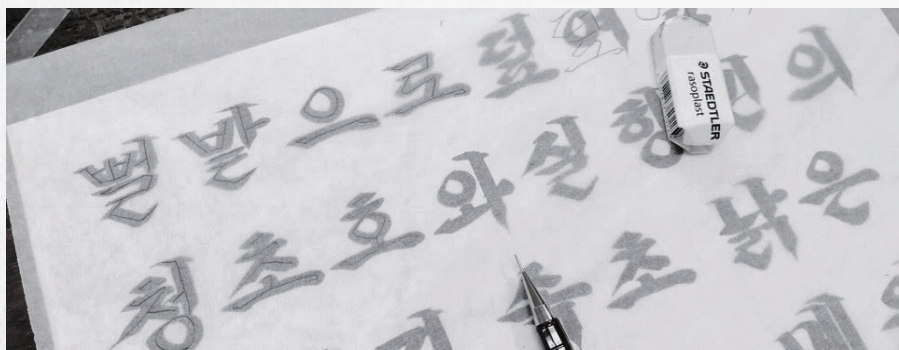
Sandoll 칠성조선소

산들이 서체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체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기존 원도의 특징과 뼈대를 분석하여 현대적인 구조로 재해석하였습니다.

① 서체 특징 - 결구



원도의 뼈대는 자소간 공간의 차이가 크고, 받침의 무게중심이 모임꼴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갖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활자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보다 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뼈대에 기반하여 새로운 뼈대를 설계였고 이를 바탕으로, 살을 입혀가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② 서체 특징 - 부리 / 뺨음

기존 원도의 독특한 부리는 납작붓을 통해 인위적으로 ‘그려진’ 형태인 반면 뺨음은 붓의 ‘쓰기’ 방식에 따라 점점 얇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폰트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되었는데, 부리의 경우 좀 더 명료한 가독성을 위해 두께감을 살려주었습니다. 뺨음 역시 아래쪽의 날카로운 뺨침형태로 인해 기둥이 짧아보일 수 있는 착시를 막기 위해, 두께를 완화하고 뺨침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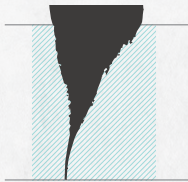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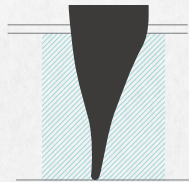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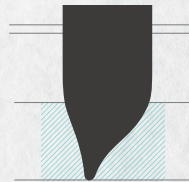
14



여



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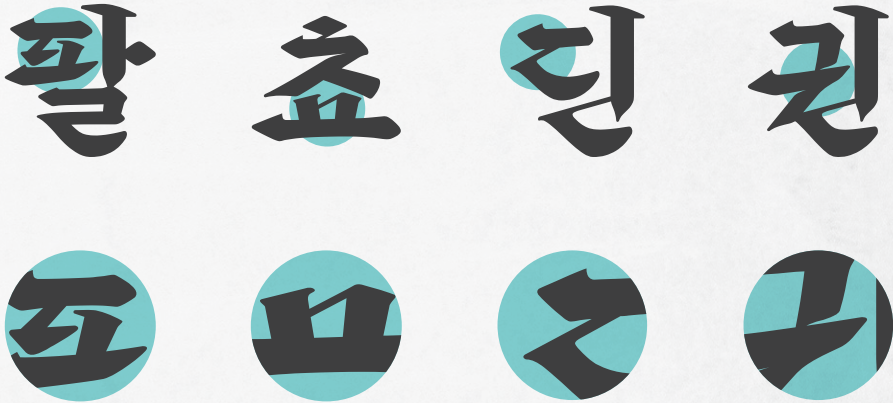
③ 서체 특징 - 형태요소

다 킨 우 문 땀 왈
다 킨 우 문 땀 왈

원도의 특정 자소(ㄴ, ㄷ, ㄹ, ㅌ, ㅍ, ㅂ 등)들이 갖는 특유의 기울기로 인해 전체적인 글자 외형이 마름모꼴처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를 살려 글꼴의 인상이 마름모꼴 형태를 갖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좌우로 각도가 벌어지는 <ㅍ, ㅂ> 계열에서는 가로반침꼴의 안쪽 획의 기울기를 완화하여 서체로서의 안정감을 더해, 칠성조선소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만

④ 서체 특징 - 역동성



16



원도에서 도출한 날렵한 삐침과 허획 요소를 서체 곳곳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활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획과 획 사이 공간에 잉크 트랩 장치도 추가하여 서체의 개성을 더하였습니다.

받침 'ㄴ'자의 경우는 글자 모임꼴에 따라 획 구조가 변화하는 특징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⑤ 서체 특징 - 라틴

If 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
then why can't I paint you?

The words will never show the you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Out of the night that covers me,

구렁이 속같이 어둡다 Black as a pit from pole to pole,

어떤 신에게도 정복되지 않는 영혼을 I thank whatever Gods may be

내게 주심에 나는 감사하리라 For my unconquerable s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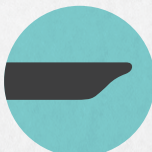
카초월 KQR Iveigt



⑥ 서체 특징 - 문장부호

“안녕~” ※경고! 봄·여름/가을
 6,024₩ + 3,185£ ÷ 279¥ = ?
 #해시태그 → 10%? A&R 36.5°
 @San:doll Ⓐ 「봄바람 —」
 (생략)^_^; <무제> ㉠
 『제목용』 《초한지》 · · ①
 칠성조선소 YCRAFTBOATS ㊦ No. ㉠

18



걸어가다가 배만 보아
일하던 때 생각이요.
저는 목선을 만드느

이면 옛날 생각이 나요.

20

일을 했어요.

〈나는 속초의 배 목수입니다〉 중에서
Sandoll 칠성조선포 40 pt

배

안전 제일

22

Sandoll 칠성조선소

109 pt

속초인

알바라

24

Sandoll 칠성조선소

125 pt

원산조선소

Sandoll 칠
55 pt

since 195

속초의 바

정조선소

2

Sandoll 칠성조선소
75 pt

26

이 목수

Sandoll 칠성조선소
95 pt

사슴

Sandoll 칠성조선소

240 pt

업 배 목수 하루 일당 나무 도구
손 나무배 조선소 명태 오징어
선택과 후회 돈과 밥 속초 고향
청초호 영랑호 자연 집 가족
웃음 냉면 커피 술과 담배 노래
통일 제주도 건강 나이 인생

28

<나는 속초의 배 목수입니다> 중에서

Sandoll 칠성조선소

20 pt / 10pt



PROGRAM at NIGHT

젊은 지성의 워터 곱창전골
채널 1969



PROGRAM on SUNDAY

Local Shops X Laon Market



2018 **라** 11월
칠 이 성
3일 **브** 17일

2018 **시** 11월
칠 **네** **성**
3일 **마** 17일

CHILSUNG BOATYARD HISTORY



1 1952년 '원상조선소' 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자리에
9 문을 열고, 2017년 8월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 배를 만들고 수리하여 바다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2 2018년 2월 칠성조선소는 새로운 모습으로
設立 사람들에게 개방되었고 살롱, 뮤지엄, 플레이스케이프,
오픈 팩토리 네 개의 공간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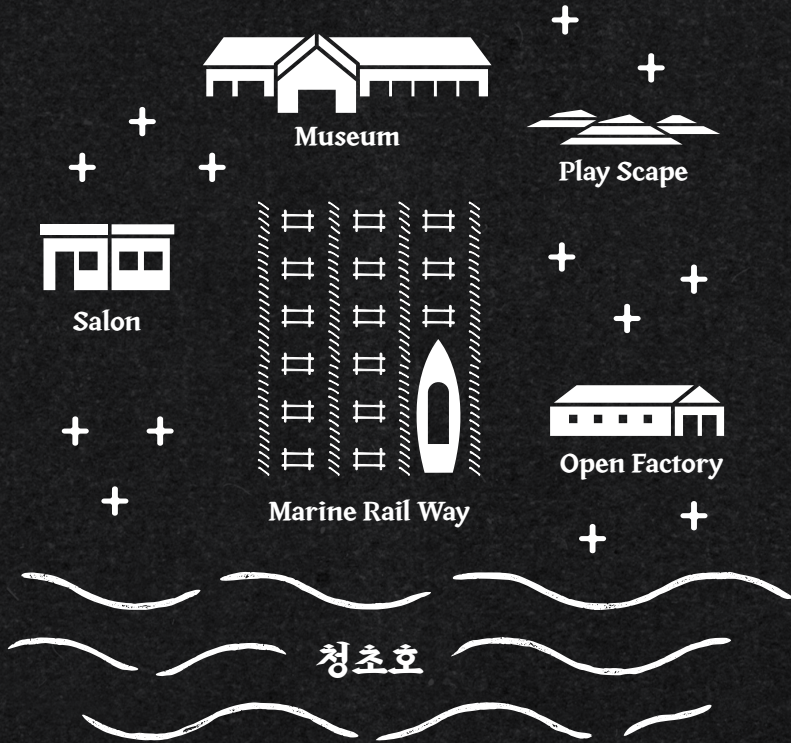
칠성조선소

Museum

칠성조선소 뮤지엄은 조선소에서 사용하던 공구나 오브제 그리고 사진 등을 이용한 작품으로 스토리텔링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한 때는 사무실, 식당, 작업공간,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Salon

살롱은 1974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조선소 가족들이 살던 공간 이었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식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편의 시설입니다.



Play Scape

플레이스케이프는 파도, 산, 나무 그리고 배를 주제로 한 조형물입니다.

이 곳은 커다란 나무를 자르고 켜던 제재소가 있던 공간입니다.

Open Factory

오픈 팩토리는 와이크래프트보츠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배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 자리는 배를 만들던 공간이었습니다.

!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가	각	강
간	갈	값	감	갑	값	갓	갸	강	갯	갸	갈	갈	강	개	객
개	객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갸
나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낙
낭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다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닥
당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라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략
마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맥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바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백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셀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소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염	엽	엿	옛	옳	영	열	옆	영	예	예	엘	엠	엠펜	옛	옳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탸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팸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한글 2,780자

라틴 100자

문장부호 405자

추가 디벳자 5자

Hangle 2,780 glyphs

Latin 100 glyphs

Symbol 405 glyphs

Additional Symbol 5 glyphs

칠성조선소 서체이야기

Chilsung Boatyard Type Story

펴낸곳 아이디브릿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8-7 3, 4F
전화 02 511 2644
홈페이지 www.idbridge.co.kr
종이 모조지 80g/m²

Publishing ID.bridge
Address 3-4F, 8-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06021, Republic of Korea
Tel 02 511 2644
Homepage www.idbridge.co.kr
Paper vellum paper 80g/m²

Copyright 2019 Idbridge.Co., Ltd.

저작권은 (주)아이디브릿지에 있으며 이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in any fro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철성조선소 | IDBR. | sandoll